

주요소식

청렴 방방곡곡



고성교육지원청

청렴 실천 이웃사랑 봉사활동 전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이웃들에게 온정과 사랑니눔 실천으로 따뜻함을 실천



경상남도교육청

'청렴 도시락 토론회'로 청렴 소통 간담회 실시

도교육청 감사관과 교육지원청 청렴담당자가 만나 청렴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와 개선 의견을 나눠 소통의 시간을 가짐

하동교육지원청



청렴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민과 함께 청렴 플로깅 전개

쓰레기를 주워 온 시민에게 청렴 기념품을 제공하여 기후환경 변화에 실천하는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청렴의 자세를 널리 전파



거제 한아름 유치원

청렴 문화 캠페인 실시

동아리 '청렴우먼즈'(청렴,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여성들)는 갑질 근절 선언문 낭독,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등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



진주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운영도 청렴과 함께

운동부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을 제시하고 문답식의 진행



물에 관한 명상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도 않는다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도 돌아서 간다

평생을 제 키보다 긴 팔로
나무를 안으며 돌부리를 다듬으며
물고기를 부르고
새들의 발을 씻어준다

온 몸으로 대지를 적신다

바다 안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어쩌다 몸에 티끌이 묻거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하늘에 자신을 비추며
스스로를 정화시킨다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채찍질한다

사람도 물처럼 흘러야한다
물처럼 살아야한다

아무도 보거나 듣는 이 없어도
말하는 이 없어도

어쩌면 셈하는 이 없어도

날마다 진실의 거울 앞에 서서
몸과 마음을 씻는 사람

시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사방이 칠흑에 잠겨서
어둠이 밤 한복판에 꼬리를 틀 때
찬 바람이
공원의 나무며 여린 풀들을
칼날 상처로 훑고 가는 것을 본다.

반딧불이는
세상이 아직 우기에 젖어
눅진한 안개가 돌담 이끼로 자랄 때
다습한 공기가
아이들의 그네며 미끄럼틀을
핏빛 녹으로 덮어가는 것을 또 본다.

반딧불이는
바람 느껴 질어 별조차 없는 이런 밤에
홀로 공짓불을 켜 든다.

외론 불은 또 다른 불을 불러 빛이 되고
그 빛 어둠을 흠어 신새벽 여명(黎明)을 밝힌다.

반딧불 외등 아래서
순한 세상 마을 사람들은
덧난 녹을 닦고 젖은 땅을 말려
청렴(淸廉)한 세상을 올곧게 키운다.

세상이 환하다.

청렴 칼럼

행복이 찾아오는 조직생활을 위해서

삶은 기나긴 마라톤과 닮았다.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경기에서 자신의 체력을 파악하여 배분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다. 오랜 경험을 가진 선수는 초반부터 무리해서 달리거나, 달리는 동안 잠시 선두에 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점심식사를 10분 내에 마친다고 한다. 업무에서도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많은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쫓기며 살아가는 이는 얼마까지 못해 지치기 쉽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육체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당장은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큰 손해다.



만약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삶을 놀이삼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놀이라 함은 책임감 없이 대충 살아가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몰입하여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자. 땀에 흠뻑 젖어 밥을 먹지 않아도 힘들거나 배고픈 기색이 전혀 없다. 삶을 놀이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재미도 있고, 창의력도 극도로 발휘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흔하다.



잠시 지금 하는 일을 놀이라고 생각해 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정하고, 시기를 조정하고 적당한 여유를 포함시켜 시간배분을 해보자, 만약 이런 마음으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냉정하지만 자신의 업무적성과 처리능력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뜻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업무가 배분되어서 누구 한 명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다같이 살피고 노력해야 함이 기본이다.

청렴감사담당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로빈 S. 샤르마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 베스트셀러 작가 로빈 샤르마의 책을 소개합니다.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진 책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도서관에서 한번쯤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와는 내용이 사뭇 다르지만 오래된 책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책속으로

‘시간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 선물은 없다.’

‘피카소가 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음악처럼 살아라.’

‘과거에 얼마나 아픈 일이 있었는지는 신경쓰지 말자.’

‘미래는 다행히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새벽은 새로운 삶을 열어줄 기회를 어김없이 동반하고 온다. 그러니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밝아오는 날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자.’

청렴한 당신에게 드리는 음악선물



YouTube



Walter Rodrigues Jr

HOW DEEP IS YOUR LOVE

월터 로드리게스 주니어(Walter Rodrigues Jr)는 브라질의 재즈, 핑거스타일 연주자입니다. 기타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연말과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경남교육청은 청렴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